



인생유전(人生流轉)... 나는 '영원한 기자'



뉴스시 경기남부 이준구 기자

서 2018년 정년퇴직을 하고 다른 일간지에 '대기자(大記者)' 라는 직책으로 사설과 칼럼을 집필하고 있을 때다. 글이나 좀 더 쓰다가 사회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인일보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잠깐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 그 후배는 사회부장을 지내다가 회사를 나와 통신사의 지역본부를 인수, 경영하고 있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11차례나 받아 전국 최다 수상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능력 있는 후배였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그 기록도 역시 깨졌다고 한다.

'종잇밥' 을 먹은 지 어느덧 35년이 넘었다. '종잇밥' 은 종이의 가장자리를 가지런히 벨 때 나오는 종이의 부스러기를 말하지만 언론사에 근무하는 이른바 '신문쟁이' 동료들이 자주 쓰던 말이다.

'신문쟁이' 란 또한 신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초년 기자 시절 출입처의 한 어르신은 "‘종이장사’ 들 때문에 못 살겠어" 하시면서 비판기사를 쓰는 신문기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난데없이 "선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다고 즉시 대답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선뜻 나온 말이었다.

그 때 불현 듯 머릿속에 떠오른 분은 우리나라 스포츠기자 1호이신 조동표 선배였다. 1949년 KBS에 입사했던 그는 한국일보, 일간스포츠에서 체육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친 분으로 지난 2012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25년생이시니 작고한 나의 부친과 동갑이시다.

25년의 세월동안 다니던 신문사에

경인일보 체육부 기자시절이던

1989년 제70회 전국체육대회가 수원에서 열렸다. 서류가방을 손에 든 조 선배는 당시 65세의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육상경기가 열리는 주경기장을 중형무진 뛰어다니셨다. 지금은 내가 65세가 됐다. 이듬해인 1990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을 때도 그 분을 또 만났다.

선수단과 기자단이 두 대의 대한항공 특별기를 타고 중국 대련 상공의 발해만을 거쳐 아주 특별(?)하게 직항으로 날아갔다.

당시는 중국과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중국으로 가려면 홍콩을 경유해서 가야 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당시만 특별하게 항로를 허락받아 두 시간만에 직접 날아갔다. “여러분이 지금 내려다보시는 곳이 발해만입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해하던 KAL기 기장의 기내방송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하다.

베이징의 각 경기장을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조 선배를 보고는 아, 이 분은 뺏속까지 기자시구나. 이 분으로 인하여 나는 순간 기사를 또다시 하겠다는 용기를 냈던 것이다.

조동표 선배는 80세가 넘도록 현장을 뛰어다니신 영원한 기자였기에 늘 나



1990년 베이징아시아게임 당시 남북체육회담 관련 기자회견 장소인 베이징호텔 앞에서

의 귀감이 됐다. ‘기사는 발로 쓰는 것’임을 실천했던 분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사회부장 경제부장 문화체육부장 편집국장에 논설위원, 대기자까지 지내다가 회갑의 나이에 ‘막기자’로 뉴시스 경기남부분부에 입사한 지 벌써 4년이 다 돼간다. ‘막기자’란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어로 표현해서 안 됐지만 초임기자들을 ‘사쯔마와리’라고 부른다. 취재거리나 보고거리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서나 파출소를 순시한다는 얘기로 일명 ‘막기자’라고 언론계에서는 부르기도 한다.

정신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 4년 가까운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

다. 신문사 생활 30여 년동안 본사에서만 내내 근무했던 터라 지역을 담당하는 게 생소했다. 같은 통신사인 Y사와 마찬가지로 나는 5군데 시군을 담당했다.

용인 성남 광주 여주 이천 등 다섯 군데서 들어오는 보도자료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데도 하루 온종일 빠듯했다. 때로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괜찮은 보도자료는 보충취재는 물론 현장에도 나가봐야 한다. 어느 날은 취재를 위해 몇 군데 지역을 단숨에 한 바퀴 다 돌다보면 늘 시간에 쫓기고,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

1998년 11월18일 4박5일 간의 금강산 첫 관광 동행취재에 나선 필자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통신사 기자는 마감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다투는 주요 기사는 24시간동안 그때그때 송고해야 한다. 24시간이 모자라 25시간을 향해 달리기도 한다. 그래도 ‘물 만난 고기’처럼 옛 시절로 돌아와 일하는 게 늘 새롭다.

매일 10여 건의 기사를 송고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선배, 미쳤어요? 쉬엄 쉬엄하세요. 그러시다 탈 나시겠어요”하는 후배들이지만 나이들어서도 요령피우지 않고 이리저리 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며 나를 롤모델로 삼기도 해 고마운 그들이다.

자랑같지만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릴 때 ‘성남시의료원 남자간호사도 이태원에 갔다’는 특종기사는 포털에 70만 뷰어를 찍어 전국 1등을 하기도 했다.

조동표 선배처럼 ‘뺏속까지 기자’는 아닐지라도 현장에서 ‘잘 하던 짓(?)’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대학졸업 후 전공을 살려 만화영화사에서 잠시 일했지만 곧 회사를 뛰쳐나와 수 많은 언론사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최종면접에까지 간 곳도 여러군데 있었지만 아쉽게도 기자와는 더 이상 인연이 없는 듯 했다. 도로교통안전협회(현

도로교통공단)에는 합격했지만 적성이 아닌 것 같아 며칠 다니다가 금세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선생이 됐다. 이도 3년 가까이 하고 나니 싫증이 났다. 선생을 하면서도 수습기자 시험에는 계속 응시를 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글쟁이’의 욕심이 계속 자리잡고 있었나 보다. 교육청 출입시절 모교에 들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교 행정실장과 환담을 나누다가 호기심이 발동, 생활기록부를 좀 보자고 했다.

부모의 희망은 역시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학생의 희망란’에는 3년 내내 저널리스트라고 써 있어 나도 놀랐다. 기자도 아닌 저널리스트로 써 있는 걸 보니 마음속에 늘 글쟁이의 꿈이 있었는가보다.

여주FC 감독을 하던 박종환 축구감독과 인터뷰하는 모습



튀르키예의 한 고속도로에서 만난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사이의 말춤을 추는 모습.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자성예언(自成豫言)이었을까?

30살 나이에 뒤늦게 경인일보에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뭘 듯이 기뻐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신문사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동기들보다 입사가 훨씬 늦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만 30세가 되던 해 언론계에 발을 디딘 나는 신문사 근무 25년째 되던 해에 편집국장의 직을 떠나게 됐다. 4반세기 동안의 짧지 않은 기자생활을 마치고 경기대학교에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 간 교양필수인 3학점짜리 ‘글쓰기’ 과목을 가르쳤다. 산학협력교수 모집에 응시해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은 파괴된 팔미라의 열주문.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쓰는 것’ 보다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성적을 평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다.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자의로 2015년 2월 학교를 떠나게 됐다. 뒤늦게 부교수까지 되긴 했지만 강의-학생성적평가-학생들로부터의 평가-학교로부터의 평가 등 대학교수의 사회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글쓰는 것과 글쓰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아 그냥 내가 쓰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이었다. 어쨌든 비록 3년의 대학생활이었지만 대학이라는 사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

이제 다시 현장기자로 돌아왔다. 패기 넘치는 젊은 시절만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언론 현장에서 할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지금은 취재국장을 맡아 기자들과 아이템을 고민하고 기사를 만드는 일에 씨름하고 있다.

사고나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늘 겪던 희로애락(喜怒哀樂)들이 펼쳐지고 이를 또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야 한다.

아들, 딸같은, 막내동생같은 기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스스로도 더 젊어지는 것 같아 더욱 보람 있다.

만화영화사-고교 교사-기자-교수, 그리고 다시 기자로 돌아온 人生流轉. 세상속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힘 닿는 데까지 담고 싶다. 그리고 새내기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영원한 기자’로 남고 싶다. 그리고 이 직을 그만두더라도 천직이랄 수 있는 글쓰기는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해본다. 🍷